

‘논란’ 정무부지사·연구원장 임명 후폭풍

정의당 도당, 부지사 농지법 위반 등 검찰 고발 예정 주민자치연대, 제주연구원장 용역 감사위 조사 요청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각각 ‘부적격’ ‘미흡’ 판단을 받은 인사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지역사회내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들 인사에 대한 검찰 고발 예고와 수사 촉구,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를 요청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지난 1일 취임한 고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임명됐다”면서 “특히 농지법 위반 사실은 본인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정무부지사는 1차 산업을 담당하는 최고위직으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한 자를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8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성명을 내고 “고 정무부지사는 사퇴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농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희룡 도지사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실토한 고 정무부지사 임명을 강행한 것을 보고 농민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가 어떻게 정무부지사 후보에 나설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농민들은 고 정무부지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며 “경찰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실토한 고 정무부지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으나 임명이 강행된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가 제주테크노파크 등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진행한 용역과 관련 선정과정의 타당성과 용역결과물의 적절성 등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은지·김현석기자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생활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7일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접수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현장접수 첫날 ‘한산’

7일부터 읍면동서... 25일까지 ‘선별’ 1차와 달리 혼선 없어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가 7일 도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일제히 시작했다.

‘선별 지급’이었던 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 첫날엔 지급 자격에 미치지 못한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속출하거나 신청 기준을 몰라 발길을 돌리는 주민들로 혼선을 빚었지만, ‘전도민 지급’인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는 비교적 순

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엔 오전부터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러 온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한 뒤 2층에 따로 마련된 재난지원금 접수 전담 창구로 들어갔다. 창구에선 약 6명의 직원들이 주민들의 현장 접수를 지원했고, 10명 안팎의 주민들이 대기 없이 현장 접수를 마무리했다. 곳곳에선 빈 창구도 보일 만큼 여유로운 분위기가 었다.

지난 4월 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 당시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눈에 띄었다.

용담2동주민센터는 ‘5부제’ 시행 여부를 몰라 발길을 돌리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정 요일이 아닌 주민이 방문할 경우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해당 세대주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도왔다.

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지원 자격에서 탈락하는 등 이의신청이 빗발치기도 했다. 반면 ‘전도민 지급’인 이번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에선 구비 서류 없이 신분증·위임장만 있으면 접수가 가능했다.

국민연금 드림타워 지분 확대 시민단체 ‘공공성 훼손 행위’

국민연금공단이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7일 국민연금공단에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에 대한 공개 질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다혜기자

김모(77·용담2동)씨는 “예전엔 집에서 가져와야 할 서류들이 많아서 번거롭고 대기 인원도 많아 오래 기다렸는데, 이번엔 간편하고 빨리 끝나 좋다”고 말했다.

용담2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지난 4월 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 때 절차도 복잡하고 건강보험자격을실확인서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해서 주민도 직원들도 힘들었는데, 이번엔 신분증과 위임장만 있으면 돼 혼선이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읍·면·동 접수창구를 통한 현장 접수는 9월 25일까지이며, 14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에선 지난 5일부터 5부제가 해제돼 9월 27일까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내년 평준화고 학급당 인원 29명

도교육청, 고교입학전형 확정 전년 대비 학급당 4명 줄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세부계획’ 등을 확정해 지난 4일자로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정원은 총 5952명이다. 2020학년도 입학정원 6173명에 비해 221명이 감소했다.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은 29명(2020학년도 33명)으로 89학급 2581명으로 편성했다.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시 동(洞)지역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전년 대비 4명 하향 조정된 결과다.

학교 체육과, 애월고등학교 미술과,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성산고, 영주고, 제주중앙고)로 총 13개교이다. 후기고등학교는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비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제주의국어고등학교)로 총 23개교이다.

전기 모집은 1개 학교만 지원이 허용된다. 전기 고등학교에 합격하면 입학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단, 특성화고등학교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은 특성화고 일반전형 지원이 가능하다. 제주의국어고, 전국단위 자사고, 국제고는 2019학년도부터 후기 고등학교로 이동함에 따라 제주의국어고, 전국단위 자사고, 국제고 지원자는 후기 전형 기간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내신성적 100%에 의한 고입전형이 3년째를 맞으면서 학교현장에 안착되고 있다.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도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학생 선택 중심의 고른 지원이 되도록 학교별 전형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해 세부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평준화 일반고등학교는 학급당 정원 25~28명(2020학년도 25~29명)으로 71학급 1821명으로 편성됐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급당 정원 22명~24명(2020학년도 22명~25명)으로 56학급 1290명이다. 특수목적고등학교(특수목적과 포함)는 11학급 260명으로 2020학년도와 같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선발시기에 따라 전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로 나눠 학생을 선발한다. 전기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제주과학고등학교), 일반고 특수목적과(남녕고등

거리두기 타격... 소상공인 카드매출 ‘뚝’

제주지역 8월 넷째주 매출 전년동기 대비 21.44%·전주 20.05% ↓

최근 제주지역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년 수준까지 회복됐던 도내 소상공인 매출이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카드 결제 정보 등 지역별 매출 추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5주차(8월 24일~30일) 제주지역 소상공인 카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44%, 전주 대비 20.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5주차(4월 6일~12일) 전년 동기 대비 24.72% 감소한 이후 최저 기록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시 지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04%, 전주 대비 17.88%로 모두 떨어졌으며,

서귀포시도 전년 동기 대비 19.26%, 전주 대비 28.03%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시작된 8월 초만 해도 제주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수준을 회복해 중반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또한 제주지역에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등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이 매출 감소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2%, 전남·광주 26%, 경기도 25%, 대전 24%, 강원도·충북·충남 23%, 인천 22%, 부산 21%, 세종 20%, 전북·경북·경남·울산 19%, 대구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 최초 LG Z:In 창호천시장 오라점 오픈

최고의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빠르고 정확한 상담, 책임시공, 철저한 사후관리를 저희 한진시스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 * 신축공사(주택, 상가) 맞춤형 창호제안, 설계 지원
- * 리모델링 공사 상담 환영!!

미세먼지 예방

JB 나노방진시스템

JB 프리미엄 나노방진망

자연풍 및 환기가 가능한 PRE-FILTER의 정점과 미세먼지 / 꽃가루 / 황사 / 냄새 / 빗물방탄 / 평균 99.9% 박멸은 물론 PM2.5 초미세먼지 98.1%까지 차단 할 수 있는 첨단 나노 섬유외장 정점한 세계 최고의 '창문형 공기청정시스템'입니다.

1급발암물질 미세먼지	5-10μm
집이나 직장 내에 머무르는 시간은 90% 이상	2-5μm
환기를 안 하면 실내보다 2-5배 오염물질 발생	1-2μm
공기청정기만으로는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없음	0.1-1μm

절대적인 환기시스템 필요

SOLUTION

자연환기가 가능한 JB나노방진필터

- 머리카버(50-70μm)
- 미세먼지(10μm)
- 초미세먼지(2.5μm이하)

당신을 위한 창호 전문 상담

1F: 전시장

2F: 카페 내부

제주특별자치 제주 2015-07-05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주)한진시스템

제주시 아연로 175(오라이동)

TEL.711-5169

KCTV 우정골프연습장

해역사 곤드레집

(주)한진시스템